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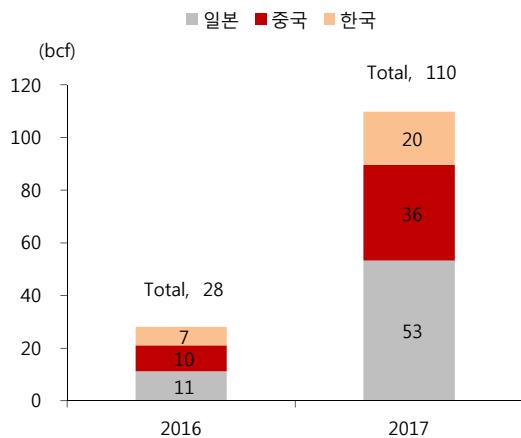
# Issue Comment

- ✓ 미국산 LNG 의 2017년 아시아 유입량이 급증함
- ✓ 아시아 LNG 믹스가 미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음
- ✓ 선대 이동 및 선박 공급 과잉으로 추가 발주 여력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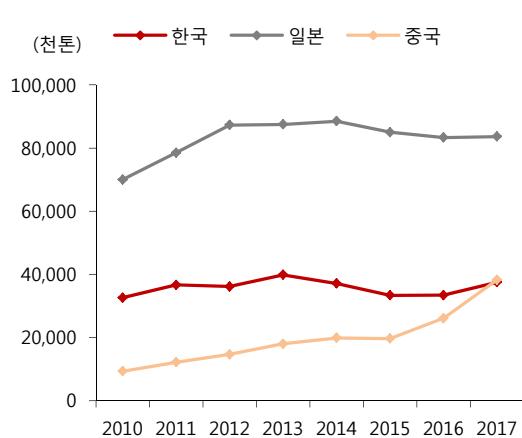
## 아시아 LNG는 미국산으로 '대체'될 뿐, 추가적인 LNG 탱커 발주는 제한적일 것

EIA 발표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의 2017년 미국산 LNG 수입량은 2016년 대비 각각 2.9배, 3.7배, 4.8배 증가했다. 그러나 각국의 LNG 총 수입량은 중국을 제외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 대비 LNG 수입량이 2배 이상 많아 전 세계 LNG 수입량 1위를 기록중인 일본의 경우 2016년 대비 0.4% 증가했을 뿐이었다. 즉, 에너지 블랙홀인 아시아에서 카타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기존 LNG 수입 믹스의 일부를 미국산 LNG 가 대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SK 증권 리서치센터는 2017년 7월 3일 “남쪽 나라 LNG의 위기, 그리고 조선 이야기: Global New Energy Roadmap Episode II”에서 아시아 지역은 미국산 LNG의 경제성 때문에 카타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의 남쪽 나라로부터의 LNG 수입 비중이 줄고, LNG 탱커 공급 과잉으로 추가적인 발주보다는 남쪽 나라를 오가던 선대가 미국에서 아시아를 오가는 루트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추가적인 가스 액화시설 증설이 완료되면 2019년 기준 9.6bcf/d의 capa가 진입해 미국산 LNG의 아시아 유입은 앞으로도 가팔라질 전망이지만 현재의 낮은 용선료 레벨과, 120척 가량의 LNG 탱커 인도 예정 물량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선박 발주 여력은 제한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미국산 LNG 수입량 변화



한국, 중국, 일본의 LNG 총 수입량 변화



자료 : EIA, SK 증권

자료 : KITA,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